

목 차

목회 간증	이종형 목사님
성서를 통해 본 이주민(디아스포라)에 대한 고찰	유병춘 원로 목사님
<여름수양회> 2010 년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마치며	임항순 장로
<여름수양회> 배웠다, 배운다, 배울꺼다	사공 희 교우
<선교> 유카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방명은 교우
<아버지학교> 미네소타 제 1 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며	김식철 교우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황상섭 장로
<건강칼럼> 고지혈증(高脂血症) -고콜레스테롤(Cholesterol)증	이민선 장로
<독자투고> 선악과와 예배	진석원 교우
<독자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차애선 집사
<독자투고> 초원에는 잡초가 없었다	박미옥 사모
<독자투고> 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위한 잔치	전성균 장로
<추모> 이윤호 장로님 영결 예배 조사	전성균 장로
<추모> 이윤호 장로님 영결 예배 조사	김태환 집사
<추모> 정진생 목사님의 부고를 듣고	이병윤 교우

목회 간증/ 이종형 목사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 118:17

목회를 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 목회자로 인생을 끝내게 되다.

고등학교 2학년시절 고향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은 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종이 되겠다는 헌신을 하고 대학에 갈 때 신학에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기로 하다. 대학공부하는 동안 신학에 가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몸에 죽을 병이 걸려 졸업을 하나 취직도 군에도 못가는 형편에 요양원으로 가게 될 때 나이 22살, 살아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시간이었다. 요양원 입원에 앞서 바닷가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나는 동안 혼자 예배를 하면서 시편 118:17의 말씀을 받고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내가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게 되어 있구나. 감사함으로 입원하여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다. 어느 날 환상인지 꿈인지 풀무에 던짐을 받아 뜨거워하는데 쳐다보니 두 눈이 내려다보는 것을 느끼다. 대장간 주인의 눈 곧 하나님의 눈인 것을 느끼는데 종형아 다 녹아가니? 네가 녹으면 꼬집어 내어 내가 쓸만한 연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감사의 눈물이 나오다. 한번 다시 나를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 새벽기도하는 가운데 동료가 생기다. 여인의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갔더니 아버지를 여윈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다.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며 그 후부터 새벽 교회에서 물론 자리는 다르고 개인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의 동료가 되었다. 때로는 같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다.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통하여 데이트를 하며 둘이 앞날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다. 당시 폐결핵은 죽을 병으로 한 사람이 아파도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인데 아픈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룬다면 이는 상상할 수 없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이 맺어주시는 것이면 또한 그가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마음이었다. 결혼 이야기를 하며 나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하였더니 목사와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유를 묻자 목사는 입는 옷과 걸음걸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첫째 이유, 둘째는 목사는 가난하게 살고 또 교회에서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나는 목사 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였기에 목사되는 길을 어길 수는 없고 하여 그럼 목회하지 않는 목사 곧 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가 되는 것은 어떠하냐고 하자 그것은 관찰다고 한다.

목회하지 않을 생각이기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준비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할 생각을 하다. 예일대학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 받아 아내와 세 아이를 한국에

두고 홀로 오게 되다. 가족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고생을 해도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성탄 선물로 초청장을 보내어 이듬해 봄 가족이 도착하다. 행복하고 즐거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다. 공부하며 일하며 기쁨으로 열심히 살다. 석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박사과정에 좋은 조건으로 입학 받다. 그러나 혼자 공부하기에는 충분한 장학금이 주어지나 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하여 내가 주말에 일할 자리, 아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자 전적으로 공부하도록 장학금을 주기에 일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아내는 일하는 비자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던 가운데 올바니 한인교회에서 목회 청빙이 왔다. 교수님과 의논하였더니 박사과정은 석사보다 3 배는 더 어려운 것이고 경제 형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부하기 어려울테니 교회의 부름을 받으라고 한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충분히 살고 저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3 년간 한시적으로 목회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부임하다. 유학 온 대학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교회다. 목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상식적인 목회를 하였다. 열심히 성심으로 하는 것이다. 잘 모르기에 강단 밑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다. 한인회가 없는 한인 사회에 하나 뿐인 교회라 모든 한인을 함께 살피도록 기대되고 있다. 모든 집을 일일이 심방하며 열심히 일하였다. 사모가 자기 심방을 요청할 정도였다. 또 심방 열심히 하는 목사가 되겠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나 질문하기도 하였다. 은혜로운 목회도 하고 열심히 심방도 하고자 하였다. 목회는 영력으로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의 기도, 아내와의 기도에 더하여 미국 교회를 찾아 내 자신 은혜를 받으며 영적인 충전을 받고 싶었다. 저녁 집회가 잇는 곳을 찾고 보니 사도 오순절 교회였다. 말씀이 성경적이고 은혜로웠다.

저기 있는 한국 목사 성령 받았나?

이 자동차가 굴 때까지 다니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도 가지 않겠나?

3 년 목회 예정일이 지나면서 다른 교회에 가고자 할 때 공의회에서 한 사람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의논할 때 목사가 떠나고자 하다가 그냥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으려면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간다고 하였으니 가는 법적인 행동보다는 교인들의 사랑에 붙들리어 가야한다는 마음을 취소하고 머물기로 하다.

당신이 내 잡 빼았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은퇴 후에 싱글로 한 달 이상 고생을 하고 미네소타 교회의 부름을 받은 때 주님 건강 주시는 한 주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갈 때 임시목사로서 할 일 잘 하였다. 교회 청소를 한 것이지.

성서를 통해 본 이주민(디아스포라)에 대한 고찰/ 유병춘 원로 목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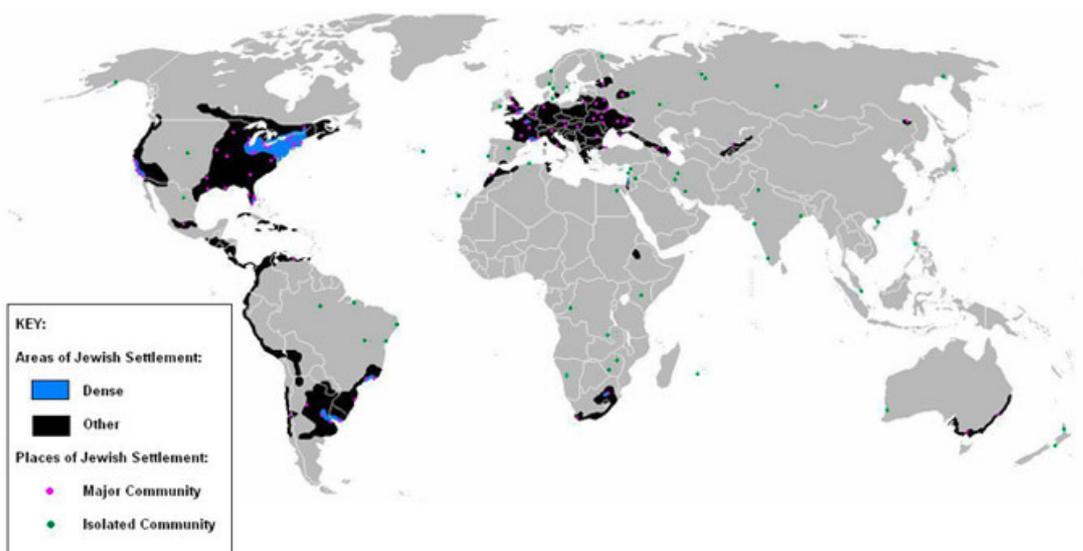
1. 이주민(Diaspora)의 기원

디아스포라(Diaspora 이주민)라는 헬라어는 생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어로는 '민족 분산, 민족 이산' 등으로 번역되고, 교회에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백성)들', '민족이 흩어지는 과정, '분산된 동족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라고 하기도 한다.

처음에 '디아스포라'는 파레스타인을 떠나 외국에 사는 유대인을 가르켰으나, 지금은 유대인 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이주민(망명, 난민, 노동자)과 민족 공동체와 문화적 차이, 민족의 정체성 등을 말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이주자의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소속감, 연대감의 수준이 공동체의 유대감의 강약을 나타내는 데 그 변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이주민(디아스포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기원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외국으로 분산되었고,
둘째. 정치, 경제 기타 압박 요인에 의해 자발적이 아닌 강제로 모국을 떠났고,
셋째. 이주한 곳에서 고유한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고,
넷째. 외국에 흩어져 사는 동족과 교류를 하기 위한 연결고리(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다섯째. 모국과 유대관계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2). 유대인이 이주민(디아스포라)이 된 과정을 살펴 보면

(1).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장차 식민지 통치를 목적으로 아라비아, 아프리카, 소아시아 지역 등으로 유대인을 이주하게 했다(삼하 8장, 왕상 4, 10장).

(2). 유대인의 이주는 나라가 앗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해 포로로 잡혀가 시작 된 것이다.

*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게 망해 포로가 되어 하블, 고산, 할라 등 메소포타미아 상부지역에 이주하게 되었다(왕하 17:6, 18:10-11).

* BC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왕을 비롯해 상류층이 잡혀가 그발강 주변과 텔비에 이주하게 되었다(겔 1:3, 3:15).

(3). 나라가 망해서 국내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자원해서 애급으로 이주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샤를 정복하자 근동에서는 헬라의 통치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충돌하면서 문화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4). 교역과 상업의 발달과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의 이민 장려정책에 호응해서 이주하게 되었다.

주전 1세기 말에 시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이태리 등지에 유대인 40%가 이주해 살게 되었고, 많은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3). 유대인의 이주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시 67:2-3절,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미5: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같고 풀위에 내리는 단비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아니할 것이며."

4).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또 다른 포로가 되어 다시 흩어졌다.

(1).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BC 322-187)가 팔레스틴을 정벌하고 예루살렘을 장악한 후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을 크게 증가시켰다.

(2).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왕(BC 223-187)은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의 유대공동체로부터 2천 가구를 브루기아와 루디아에다가 이주시켰다.

(3). 폼페우스(BC 63)는 예루살렘을 점령, 수백명의 유대인을 로마로 끌고가 노예로 팔았으나 후에는 그들 대부분이 자유와 공민권을 얻게 되었다.

(4).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 이웃 나라와 특히 문화가 발달한 성읍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자발적인 개척 이민자들이었다.

(5).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계자들은 자기 영토에 이민을 장려했다. 즉 식민지와 성읍을 개척할 자들이 필요했으므로 공민권과 무역, 상업의 편의를 주면서 유대인을

이집트의 페니키아 시리아의 코일레(Coele-Syria) 국경 지방과 밤빌리아, 길리기아, 소아시아의 폰투스(Pontus) 변두리까지 수시로 이주시켰다.

유럽의 데살리(Thessaly), 보에오티아(Boeotia), 마게도니아, 아에톨리아(Aetolia), 아티카(Attika), 아르고스(Argos), 고린도(Corinth),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키프러스(Cyprus), 크레테(Crete)에도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수도이기도 했다. BC 2세기 중엽 유대인에 관한 글에 '땅, 바다마다 그대들(유대인)이 가득하구나'라고 쓰여 있다

행 2:9-11절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인, 바대, 메데, 엘림,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아, 본도, 아시아, 브르기아 밤빌리아, 애급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 사는 자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유대인)와 유대교에 들어온 자(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세계에 이주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 보존할 사명, 메시야가 인류의 역사에 오시는 통로의 역할, 열국에 하나님의 종(증인)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하기 위함이다.

2. 이주민(디아스포라)의 특징

유대인 이주자(디아스포라)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1). 이주민(디아스포)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헬라문화에 개방적이었다.

* 이주민(Diaspora)들은 히브리어과 아람어를 사용하던 극소수 외에는 헬라어를 사용했다.

* 헬라 문화권에서 수공업과 무역에 종사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본국 유대인보다 더 윤택했다.

* 로마 시민권이 로마제국에 속한 각국에 주어졌을 때 알렉산드리아 원주민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 유대인 이주자들은 이주한 지역에서 바울처럼 헬라 문화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유대인이 많이 이주해 사는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적 헬레니즘의 중심지가 되었다. 70인역(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고, 필로(Philo)와 같은 학자들을 배출.

2). 주후 1세기 경에는 약 5백만 명의 유대인 이주민(디아스포라)이 생겨났다.

세계로 흩어진 이주민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을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제사)를 예루살렘 성전 대신 회당(Synagogue)을 현지에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도 유대교가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회당을 통해서 가능했다. 후에 이주민의 회당이 바울의 전도의 거점이 되었다.

3). 이주민(디아스포라)으로 인해서 반 유대주의적인 풍조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대인의 배타성과 경제적 번영으로 혐오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체사레아 등지에서 폭동과 법정은 유대인에게 무거운 죄와 벌금을 부과했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은 키케로, 페르시우스, 세네카, 퀸틸리아누스, 타키투스 등 로마 문인들에게서도 나타났고, 유럽과 중 근동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 반유대주의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파괴로 유대인 이주가 밤빌로니아 페르샤,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 언어와 풍속과 문화에 적응하며 한동안은 평화를 유지했으나 또 한편으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 많은 유대인이 희생되기도 했다.

4). 유대인 이주자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이주민(디아스포라)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정통 이주민(디아스포라들)은 시오니스트 운동, 즉 팔레스타인으로의 귀환운동을 지원했다. 현재 전 세계에 유대인의 인구는 약 1,300만 명이다. 이스라엘 본토에 약 260만 명, 미국에 530만 명, 러시아에 230만 명과 기티 지역에 약 2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3. 유대인 이주자(디아스포라)의 생활철학(원리)

1). **공동체 생활** :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지 않고 그발강가와 텔아비브 같은 곳에 모여서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농사를 지으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헬라. 로마시대는 자치권을 가진 단체와 최고 의결기구 장로회를 형성하고 정신적, 종교적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

2). **회당 건립** :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는 이주민들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그들은 말씀(율법)을 읽고, 듣고, 외우고, 기도하고, 시편으로 노래하는 제사를 회당에서 드리게 되었다. 회당은 이주자들의 종교, 신앙의 근거와 전통 유지에 큰 뜻이 있다.

유대인 남자 열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워 예배, 교육, 정치 등 사역했다.

3). **언어 보존** : 히브리어는 고전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랍비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등 네 단계를 걸쳐 발전되어 왔다.

고전 히브리어는 바벨론포로 후에는 일상언어로는 점차 사용되지 않아 사어가 되었고, 랍비 히브리어와 중세 히브리어도 극소수의 라비들이 사용하는 종교 언어(성서의 언어, 책의 언어)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종교지도자들은 히브리어와 종교문헌들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유럽의 유대인은 주로 독일어와 히브리어가 혼합된 '이디시(Yiddish)', 스페인어와 히브리어의 혼합어 '라디노(Ladino)' 어휘 3/4은 유럽 어휘를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 어려운 중에서도 언어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히브리어가 보존되고 20세기에 와서는 현대 히브리어가 일상어가 되었다.

4). **혈통 보존** : 포로 때 에스라, 느헤미야는 혈통보존에 관심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유다에 남았던 유대인 중에 이방(가나안, 헷, 모압) 여인들과 혼인한 유대인들에게 이혼을 명령했다(스 9:1-10, 느 13:23-31).

타 인종과 결혼으로 유대인은 소멸할 수 밖에 없고 유대교가 입을 손실을 막고자 한 것이다(신7:1-4). 당시 에스라, 느헤미야의 혈통 보존정책이 없었다면 오늘 유대인은 물론, 유대교도 생존해 있지 못했을 것이다.

5). **문서교육** :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인이 되기 시작한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문서 작성과 교육 등활동에 크게 왕성한 때이었다.

포로 때에 예레미야, 에스겔, 제2이사야 등 예언자들이 활동했고 그들의 예언이 문서로 정리되고, 시편 일부와 애가,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 제사문서 등도 이 포로기간에 완성되었다.

유다의 제의 공동체에서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와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예언서 조금 늦게 나온 에스겔, 다니엘서도 포로된 이주민의 작품들이다. 이 같은 문서가 작성되고 보존된 것은 이주민 시대를 재조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인류에게 영향을 크게 끼쳤다.

6). **현지 지도자 양성** : 바벨론의 포로들이 용기를 갖을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 제2이사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로된 현지에서 소명을 받고 사명을 수행한 지도자들이었다. 예레미야와 같이 고국에 있으면서 이주민을 위한 말씀선포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기도 했으나, 이주민의 상황을 잘 아는 현지 지도자가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간 사실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7). **70인 헬라역 성경** : 이주자들은 외국에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국제언어 헬라어를 썼다. 히브리어 성경(구약)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은 이주민들과 이방인들의 선교에 중요한 도구로 쓰였다. 만일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렸다면 당시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회당 출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행 17:10-12). 디아스포라는 헬라와 로마의 전 영역에서 70인역을 썼다(행 15:21).

8). **안식일**: 하나님이 옛새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전통적 방법으로 설명되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결케하는 표징과 언약의 증표가 있음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파멸을 부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이다(출 31:13-17, 겔 20:12). 안식일의 예언적 견해와 의식 행위는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상징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준수가 문란함을 보고 합당치 않은 일과 산업까지 금했다(느 10:31, 13:15-22, 겔 20:12-22). 안식일 준수는 이방 문화에서 유대의 주체성을 지키는 큰 역할을 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감명과 존경심을 일으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고 개종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9). **고국과 관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 궁에서 고국 유대에서 온 하나니에게서 예루살렘이 파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느 1:1-3).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기타 지역의 이주민들도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고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4.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유대인 이주자들을 사용했다

1).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 : 인류의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 된 첫 이주자(디아스포라)이다.

창세기 12: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하나님은 구속의 뜻에서 아브람을 불러(창 12:1-3), 우상숭배가 만연한 하란에서 떠나라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다.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행 7:3)하심은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7가지 약속을 하셨다(창 12장 2-3절).

-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 2). 네게 복을 주어,
- 3).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 4).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 5).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 6).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 7).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1:3-, 바벨탑 건축가,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에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달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인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무너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은 영원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 이주민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믿음의 응답이어야 한다.

2). 야곱(발뒤꿈치를 잡음, 거짓말쟁이) : 130 세에 이주민(디아스포라)이 된 야곱

야곱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주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직을 빼앗고 밧단아람 외삼촌집으로 도망간 이주자이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 한 곳에 유숙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창 28:15). 야곱은 14년 후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 왔으나 흉년으로 13세에 가족 70명을 인솔하고 애급 나일강 하류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가 살게되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산 이주자이었다.

3). 요셉(그는 더하실 것임) : 노예로 팔려가 이주민(디아스포라)이 된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과 라헬의 소생으로 형들을 찾아 도단에서 만났으나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진 이주자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은 겸손과 성실과 헌신적인 삶이었다. 후에 애급의 총리대신이 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창 50:20)라고 말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파리움을 당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한을 품지 아니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꿈을 안고, 꿈을 해석하는 명철과 지혜로 애급의 총리가 되었다. 요셉은 야곱의 가솔 70명을 초청해 애급에 이주하게한 자가 되었다.

4). 모세(물에서 건져 냄) : 애급에서 400 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급시킨 모세

애급 총리 요셉으로 인해 애급에 이주한 야곱의 가솔 70명이 4백년이 지나면서 그의 자손들이 크게 증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다. 애급은 흠이기기, 벽돌굽기, 농사짓기 중 노동으로 탄압하다가 종당에는 산파에게 남자일 경우 죽이라고 명했다. 출생한 모세를 석달을 숨겨 키우다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버렸을 때에 바로의 딸이 보고 건져와 왕실에서 성장한 이주자이다. 모세가 40세 때 동족을 구하다 살인 후 왕궁을 떠나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십보라와 결혼했다. 모세가 어느날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께서 애급에 사는 동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고는 바로왕에게 이스라엘백성을 애급에서 자유롭게 떠나게 해 달라고 했을 때 바로왕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창 41:39)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에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것을 허락해 출애급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 예언자이다.

(1). 모세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자손으로 애급에서 총생했다.

(2). 모세는 40년을 애급 왕실이 그의 은신처가 되어 성장했다.

(3). 그는 왕실을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연단을 받았다.

(4). 80세 동족 디아스포라를 출애급하게 하는 지도자 소명을 받았다.

(5). 하나님은 출애급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5). 바울(작은 자) :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서 이주민(디아스포라) 사도 바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행 21:39, 22:3)한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나민지파요 난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라(롬11:1, 빌13:5).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행 22:26-28)고 했다.

바울은 이주민으로 특히 이방인(외국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예비하신 자이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 포로로 잡혀 갔고 남은 자들도 다 흩어졌다.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 중 로마 도시 다소에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바울은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도시 다소에서 성장한 유대인의 불굴의 정신과 헬라의 교양, 로마인의 실용적 사상과 문화를 소유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마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율법에 입각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고, 헬라 문화중심지 다소에서 성장 헬라어헬라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소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도시로 로마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까지도 익숙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이주민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택함을 받은 일꾼이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없는 박해와 고난 중에서 네차례(1차(행13:4-15:21. 2차(행 15:40-18:22). 3차(행 18:23-21:14). 4차(행 21:17-24:27)의 전도여행을 하며 충성을 다한 이주민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었고 그 후손들을 전 세계로 흩어 이주시키셨다가 다시 모세를 불러 애급에서 민족을 형성한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다.

20세기 후반에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약 일천만 명의 우리 한국민족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사명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오고오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름수양회> 2010 년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마치며/ 임항순 장로님(교육위원장)

2010 년 전교인 여름수양회가 지난 7 월 30 일(금)부터 8 월 1 일(주일)까지 “역전승의 신앙으로(배현찬 목사 주 예수교회와 “The Tower of Grace (Calvary vision church Timothy Haahs 목사) 승리하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마무리 삶에 대한 설계를 예리하게 파헤쳐주어 많은 도전이 되었다.

또한 Tim Haahs 목사님은 어려움을 극복한 간증으로 진한 감동을 주었다. 건설 회사를 경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향한 실천적 운영계획에 우리 모두 감탄하였다.

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 심장이식 수술을 2 번이나 한 하목사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리더의 역할과 차세대를 위한 준비에 말씀을 하셨고 철저한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닦아가는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시간시간 은혜의 강물이 출렁이는 성령충만함이 넘쳤고 어떤 시간은 부흥회에 온 듯 했다.

열정적인 찬양의 시간과 하나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살길 원하는 인상과 감동적인 사랑의 삶의 모습을 깨달는 표저의 성도, 은혜로운 자리였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역전승의 신앙으로 성경적 말씀으로 실천하여야겠다는 재정립의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다.

전교인 수양회 준비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셨던 이종형 목사님과 기도로 성원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수양회 팀장과 팀원들께 모든 순서 진행, 등록 임무 총괄을 정확히 관리 세밀하게 기획 정리한 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장기 자랑 등을 즐겁게 보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 풍성한 기쁨을 안고 돌아왔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여름수양회> 배웠다, 배운다, 배울꺼다 / 사공 희 교우

2 주전 옥합지에 올릴 글 요청을 받고 조금 망설였지만 언제나 웃으면서 일하시는 송영미 집사님의 부탁을 거절할수 없기에 응해버렸다. 하지만 좀 미안하더라도 거절할 걸... 이라고 많이 후회를 하였는데 이유인 즉슨, 몇년전 나자신에게 했던 약속과 어긋날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통 옥합지에 나오는 글들은 주님께 감사, 예수님의 은혜라는 성스러운 글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내가 남몰래 혼자에게만 할뿐, 남들앞에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난 남들보단 늦게 2003 년 겨울, 30 세가 되던 해, 예수님 영접을 하였다. 당시 미국 St. Louis, MO 에 온지 얼마 안되었을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을 만나 약 1 년동안 Christian 들의 교회밖 삶을 탐색한 끝에 세례를 받고 born-again Christian 이 되었다. 나름대로 뜨거웠고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등 빠지지 않았고 주중/주일날 하는 성경공부엔 꼭 참석하였고 각종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들을 검색해 점심시간에 사무실 문 닫아놓고 인터넷을 통해 계속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다. 그러기를 약 2 년, 난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에서 일하는 회사가 영국의 한 동종업체에게 팔려 주재원이었던 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한국 회사 인사팀에서는 어느정도 시일을 주면서 귀환, 이사날짜등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미국의 여러면을 배우려 했던 나와 가족에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란 별로 달갑지 않았다. 그때부터 난 부랴부랴 기존 GMAT, TOEFL 성적표를 모아 미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관찰은 미국의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의 뚜렷한 목표등을 파악하려 했고 또 에세이를 통해 지원자가 얼마만큼 학교와 잘 궁합이 맞는지 하는 절차가 결코 녹록치 않았다. 당시 둘째 준이가 막 세상에 나온 해이기 때문에 세명의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는 가장인 나로선, 아주 예민했던 시기였다. 이때 난 완전히 예전의 non-Christian 인 나로 돌아갔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난 세상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 다시 내가, 내 자신이 열심히 무언가 하려했다. 아니, Christian 이 되면서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하려하기 보단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나가라는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서 들었나? 신앙의 기초를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겼던 나 자신이 도대체 왜?

집에 오면 식구들과 인사도 하는등 마는등, 내게 말시키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바로 인터넷앞에 앉아서 에세이등을 수정, 학교측에게 보내고 2,3 차 인터뷰를 요청하고 조바심에 조금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학교도 지원을 고려하곤 했다. 그러다가 제일 가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거절편지를 받았을땐 충격이란..... 이때부터 약 2 년동안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약 2~3 개월을 그런식으로

보낸후, 몸과 마음이 지쳤을때 난 U of MN 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게 되었지만 난 이때 내 자신에게 무척 실망을 하였다. '난 안되는 놈' 이란 낙인을 찍어버렸으며 내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였다. 가장 중요한 위기때 와르르 무너지는 신앙을 보며 다시는 사람들앞에서 예수님 믿는 표현/행위들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만약 내가 2년전 사람들과 나눴던 뜨거운 간증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위기때 위기를 넘기는 내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시험받았을까? 난 평생 절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지 않겠으며 위기때 나타날수 있는 신앙을 가지도록 기본에 충실할것임을 맹세하였다. 이때부터 난 남들로부터 뜨거운 감동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눈물을 보이거나 남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내거나 간증하지 않는다. 서론이 길었지만 요점은, 앞에서의 글처럼, 난 옥합지에 실릴 감사의 글을 쓸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글을 쓸때에 최대한 어조를 객관적이며 서술적으로 쓰고자 하니, 이글을 읽는 분들 이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2010년 여름 수양회 준비팀 리더이신 임항순 장로님께서 이번년도 준비가 조금 예년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팀에 참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셨을때 흔쾌히 OK 하였다.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엔 1년 반 조금 넘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몰라 주일날 뵈고 어색함이라도 없애고자 시작을 하였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양회를 통해 수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 많이 배웠음을 고백한다. 수양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수고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내가 그다지 수고했다는 생각이 안든다. 워낙 직업상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 일이 편했던 것 같고 또 성격상 어떤 목표가 있을때 빨리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있기에 남들한테 열심히 한것처럼 눈에 보였을지언정 나란 인간이 평소 살아가던대로 했을 뿐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 준비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은 정작 내 자신인것 같다.

첫째로 배웠던 것은, 교회내에서의 professionalism 이었다. 이번 수양회 영어 목회를 위해 초빙되신 Tim Haahs 목사님의 말씀은 Christian 의 교회밖 회사생활에서의 professionalism 을 강조하셨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professionalism 이다. 교회란 아주 소수의 full-time 종사자가 일하며 다수의 volunteer 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행정처리의 속도와 양/질은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 비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준비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대부분이 아니, 모두가 professionalism 으로 푹푹 무장되어 있었던 것 같다. 팀을 항상 독려하면서도 꼭 만기일별 성과물을 챙기셨던 임항순 장로님, 새벽 1~2시 사이에 한꺼번에 약 6~7통의 email 을 보내시는 황상섭 집사님, 항상 일요일 일찍 오셔서 등록을 준비해 주셨던 민철홍 집사님, 많은 어려운 일들을 흔쾌히 맡으셔서 끝까지 완성해 주셨던 박미옥 사모님,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조언과 장소/간식을 제공해 주셨던 이미숙 집사님, 신세대 답게 빨리 알아듣고 빨리 행동에 옮겨주셨던 손원찬/이진우 형제님, 준비과정의 맨뒷편에서서 늦게까지 일하며 결과물을 내어주신 김영미 집사님,

그리고 따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을 해주신 형제/자매님들 (강금주, Glen Berkland, 임혜경, 김선희, 디모데팀들). 이런 모든분들때문에 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바꾸게 되었고 앞으로 교회일을 할때 좀더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할것을 말이다.

둘째론, 헌신 contribution 을 꼽을수 있겠다. 일을 하다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주 변경되거나 불분명하게 세웠던 원칙때문일수도 있고 아님 일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아 답답함 때문일수도 있겠다. 이번 수양회팀도 어려움에 닥친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게 해준것은 준비팀원들의 헌신이였다. 전체가 한꺼번에 모여 결과물을 내야할때 주저치 않고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여 몇시간동안 집중해서 의견을 모을수 있게 해준 팀원이 있었던 반면, 많고 복잡한 일들을 도맡아 하여 다른 팀원들이 한숨돌리고 쉴수 있게 해준 팀원도 있었다. 서로가 각자 주어진 생활에 바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란 원칙을 가지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헌신/술선수범했던 분들이 있기에 모든것이 가능했다. 이런 헌신하는 자세가 교회의 여러곳에서 자리잡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줄로 믿는다.

마지막으론, 한인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이다.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수양회팀은 많은 실수를 했을것이라 생각한다. 기억이 나는 것은 나의 방배정 실수이다. 방배정을 도왔던 난, 성도님들의 지원서에 나와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였는데 이러다보니 사정이 있어 같은 가족이며 따로 등록을 했던 분들을 잘 신경쓰지 못했다. 등록일날, 열쇠를 다 나눠주고 나니 한 장로님 부부를 각각 독방에 배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간만에 날씨좋은 야외로 나와 부부가 한방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하고 시간을 나누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각방이라니 이게 웬말인가..... . 난 실수를 알게된 순간 얼굴을 뜨거워 어쩔줄을 몰랐지만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였는지 장로님께선 그냥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다. 이런저런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통해 난 수양회에서 많은 것을 배울수 있었다.

지난 수양회 준비를 통해 난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배웠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몇년전 했던 자신과의 약속때문에 이런 일들을 남들앞에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난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 큰 바퀴가 울퉁불퉁한 길들을 지나가듯이 위기때에도 평소때와 변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끔 배울것을 다짐해 본다.

<선교> 유카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방명은 교우

선생님께 예뻐받고 싶은 초등학생처럼 후보에서 유카탄 단기선교에 대한 광고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라는 맘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마음만으로 지원을 하기엔 나에게 아직 엄마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두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옆에 앉은 남편에게 큰 기대없이 후보를 보여주며 “나도 유카탄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별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결혼기념일 10주년 선물이라며 다녀오라고 했다. 방학이라 아이들 라이드도 바쁠테고 개학후 중요한 시험이 있을 예정이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테지만 바로 대답한 게 아니라 일주일의 기도 후 해 준 대답이라 더 귀하게 느껴졌다.

선교를 떠나기 전 준비 모임이 매주 있었다. 쉽지 않은 기회였던 만큼 정말 잘하고 싶었기에 여러가지 사정들로 팀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장로님께서 팀웍에 대해 선교팀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하시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이었다. 실제 선교지에 나갔을 때 같이 갔던 선교팀원들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들이 은혜가 되었다. 교회에서 말은 직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섬기는 자리로 여기시는 것처럼 묵묵히 사람들을 세워주고 챙겨주는 모습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는 오히려 잘 알지 못했지만 유카탄에서 그 분들의 귀한 믿음과 섬김의 모습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어떤 어려운 섬김이나 힘든 노력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그 자체로 즐겁게 현지 아이들을 사랑하며 어울리는 youth 아이들의 모습도 감동적이었다.

모두들 다른 모습,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각자가 즐거워하는 모습 그대로 잘 들어맞는 퍼즐조각들처럼 맞춰져서 기쁘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선교기간 내내 감사의 기도제목이었다.

유카탄에 가서 방문한 지역은 총 3 곳으로, 그곳에서 준비해간 사역들을 하기 전에 현지 사역자분들께서 복음제시를 하고, 준비한 소책자를 나눠드렸다. 이러한 자료들이 넘쳐나는 이 곳이었더라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받아든 그 소책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게 느껴졌다. 그곳은 읽을 거리가 많지 않아서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너무 넘쳐나는 자료들 속에서 귀한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는 나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다.

그곳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의료팀을 돕는 역할이었다. 두 분 장로님께서 진료하시는 중간에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때 눈물흘리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풍성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때로는 점심시간을 넘겨가며 환자들을 진료하시기도 하셨는데,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모습들 또한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다.

진료받으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잘 하지 못하는 스페인어지만 외워간 표현중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해 드렸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늘 생각해왔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손을 꼭 잡으시면서 감사한 눈빛으로 응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그 순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둘째날 방문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심지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었고 집들도 허름해 보여서 형편이 넉넉치 않아 보였는데, 우리의 방문을 반겨 주시고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시는 그 분들의 모습을 통해 제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나눠 주면서 오히려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온 것 같다.

며칠만 머무르는 단기선교였기 때문에 선교의 힘든 부분은 없고 좋은 부분만 경험하고 온 것 같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현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여러모로 준비해주셨던 김석년 선교사님의 수고덕이었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 어려운 현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모습이 느껴졌다.

어려서 부터 오랜 신앙생활가운데 늘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너무 많은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야 겠다는 생각에 선교를 결정하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돌아온 시간이었다. 늘 어렵게만 생각했던 선교가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앞에 조금씩 자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가운데서 조금씩 실천되어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아버지학교> 미네소타 제 1 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며 / 김식철 교우

저는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에서 매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믿음이 아주 서서히 자라는 평범한 평신도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남선교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학교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학교에 참가하자는 권유를 받았습시다. 그 동영상 속의 아버지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아버지 학교에는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동영상을 보았을 때도 역시 수많은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감동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감동의 물결에 휩싸여 나도 저

아버지들과 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를 맞춰 한 권사님의 추천을 흔쾌히 받으들여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학교 첫 만남, 두 손에 받아 든 아버지 학교의 교재의 표지에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 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가는 듯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입니까?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했을 때,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살아 온 지난 열 여덟 해 동안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의식도 없이 살아온 아버지인 내가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강사형제님들의 강의가 진행될수록 그런 생각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무대에 오른 연극배우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여 돈을 잘 벌면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나마 주어진 휴일이나 주말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내 육신의 보상의 날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취미생활이나 휴식을 즐기며, 아내와 세 딸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자녀들과 대면할 때면 “공부해라”는 말밖에 해 준 말이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도 그저 언성을 높일 줄만 알았지 지혜로운 교훈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일의 노예처럼 바쁘게만 그리고 나 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아버지로 살다가 ‘이거는 아니지!’하고 깨달은 순간 자녀들은 어느새 성장하여 부모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학교 강사형제님들의 말씀처럼 이제는 인생의 Half time 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순결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순결할 때, 치유와 회복이, 용서와 화해가, 변화와 성숙이 그리고 행복해진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영향력이 3-4 대까지 이른다’는 가르침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줄 경험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아이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학교 마지막 모임을 보내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를 포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회복하고, 순결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도력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 세워진 당당한 지도자가 되어, 성경적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하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고……

PS: 3 일 동안 저희 5 조 해바라기조 조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신 한기수 조장님과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황상섭 장로

옥합에 글을 좀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엇이 적합할까 생각하던 중에 그동안 저와 저의 가정의 신앙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고 길잡이가 되고 있는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를 소개해 드리고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간단하나마 몇 자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JAMA 는 1993 년 10 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뜻깊은 몇 몇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JAMA 의 MISSION 과 VISION 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 장 14 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JAMA 는 각종 죄로 묶여 있는 미국과 우리들의 가정과 개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 운동입니다.

JAMA 와 저와의 인연은 2001 년 Montreal, California 에서 있었던 JAMA GLF(Global Leadership Forum)을 참석하면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내 전국 각지에서 오신 30 여명의 평신도 사역자들로 모인 이 모임은 저의 신앙 생활에 새로운 눈을 뜨게한 뜻깊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온가족은 세차례에 걸쳐 JAMA NEW AWAKENING CONFERENCE 에 참여 하였고 또 저와 저의 아내는 2005 년 California 의 San Diego 갈보리 장로교회 에서 열린 제 7 차 JAMA 전국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해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실시되었던 2 차례의 부부동산과 1 차례의 QT Seminar, 자녀 교육 세미나도 JAMA 를 통해 알게된 강사님들을 모시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5 년 GLDF(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Foundation)를 계획하고 설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는 Executive Vice President 로 약 일년간 섬겼으며 이 기회를 통해 또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절감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종일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JAMA 를 통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사역은 크게 네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로는 JAMA NEW AWAKENING CONFERENCE입니다. 미국 내에서 격년으로 열리며 제 1 차 컨퍼런스는 1996 년 여름, Fort Collins, Colorado 에서 2500 명 이상의 Korean-American 들이 모여 성황리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내년 2008 년

컨퍼런스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며, 3박 4일 일정 동안 접하는 다양한 session 과 activity 를 통하여 듣고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성가 찬양팀이 직접 이끄는 뜨거운 찬양을 통해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JAMA 컨퍼런스는 미국뿐 아니라 Australia, Germany, England, Canada, and South America 에서도 열린 바 있어 JAMA 를 통한 이같은 영적 각성 운동은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JAMA INTERCESSORY PRAYER CONFERENCE(KOREAN SPEAKING)입니다. 자마 중보기도 사역자 대회는 매년 열리어져 왔으며 제 9 회 대회는 2007년 7월 2일-5일 기간에 순복음 뉴욕교회(김남수 목사 시무)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7월 4일 연휴가 끼어있는 기간이었지만 휴가보다는 기도를 택한 420명의 등록자와 매일밤엔 700-900명이 자리를 함께 해서 중보기도의 함성으로 뉴욕을 흔드는 집회였다고 합니다. www.jamaprayer.com

셋째로는 GLDI(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입니다. GLDI 는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학교로 제 1 차로 2007년 6월 24일-8월 3일 까지 40일간 Vanguard University, Costa Mesa, CA 에서 19세-25세 한국인 2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또 세계를 이끌어 갈 영적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되도록 돕고 키우는 이 사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인 40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periencing Personal Transformation & Visionering
- Grasping Biblical Truth & Worldview
- Becoming a Christ-like Servant Leader
- Preparing for Leadership in Global Perspectives
- Making the Most Out of Life (relationship, money, time, etc)
- Discovering God's Calling (ministry, career)
- Transforming the Community & the World

<http://www.jamaprayer.com/제/10126>

마지막으로는 GLDF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Foundation) 입니다. 세계 지도자 양성 재단으로써 GLDI 의 운영과 지도자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감당하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Non-profit Organization 입니다. Funding 의 Sources 로는 Individual donations, Church donations 등이 되며 현재 목표액 10

억불(100 million)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다 채워지고도 넘치리라 믿습니다.

JAMA 에 관련된 모든 사역들을 지면 상에 다 알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JAMA 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고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JAMA 웹 사이트 www.jamaglobal.com 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칼럼> 고지혈증(高脂血症) -고콜레스테롤(Cholesterol)증 /이민선 장로

얼마 전 한 교우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분의 질문은 자신의 혈액 검사에 관한 것이었다.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가 저밀도 지방 단백질(LDL)은 정상인데 고밀도 지방 단백질(HDL)이 낮다고 하니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최근 들어 많이 발표된 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많은 이들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좋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학 지식이 넘쳐나서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인의 도움 없이 이를 접하게 되는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콜레스테롤로 인한 합병증이 예방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콜레스테롤은 무엇인가?

콜레스테롤은 우리 체내의 모든 세포 조직 속에 존재한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우리 몸의 기능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호르몬을 만드는데 기초 자재가 되기도 한다. 이같이 우리 몸의 구성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필요로 하는 모든 양을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해 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하는 모든 콜레스테롤은 인체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과잉 콜레스테롤이 되는 것이다.

혈중에 이같은 과잉 콜레스테롤 양이 너무 많아질 경우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침착을 하게 되며 이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동맥 내 콜레스테롤 침착은 동맥 혈관의 직경을 점점 좁아지게 하며 이로 인해 몸의 각 중요 장기로 보내야 할 혈액의 흐름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심장으로 가는 관상 동맥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심근으로 가는 혈액 양이 부족하게 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 마비(심근 경색증)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이같은 동맥 경화 현상이 뇌로 가는 뇌동맥에 생기는 경우 뇌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한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심한 경우 중풍을 일으키게 된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체내 단백질 성분과 결합하여 피 속에 존재하는데 이 복합체를 지방 단백질(Lipoprotein)이라 한다. 이 지방 단백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저밀도 지방 단백질(Low-Density-Lipoprotein, LDL)

이는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저밀도 지방 단백질은 혈관 내 침착하여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동맥의 직경을 좁히는데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 고밀도 지방 단백질(High-Density-Lipoprotein, HDL)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며 이 콜레스테롤은 체내에 남아 돌아가는 여분의 콜레스테롤들을 잡아다가 간으로 되돌려 와서 간에서 이를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였을 경우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방 단백질(LDL)은 낮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방 단백질(HDL)은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있거나 몸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 체내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치의 변동은 이같이 본인 자신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요소 외에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 배합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 위험 요소(Risk factors)**

혈중 콜레스테롤 치가 높은 것만으로도 심장병 등 동맥 경화로 인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에 다음과 같은 또다른 요소가 복합될 때, 그 위험율은 증가한다.

1) 흡연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 내의 유해 성분이 혈관 벽을 손상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손상된 혈관벽은 지방 침착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흡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2) 고혈압

고혈압은 동맥에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이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되고 손상된 혈관 내벽은 지방 침착을 가속화시킨다.

3) 당뇨병

높은 혈당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동맥 혈관벽의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4) 심장질환 가족력

부모나 형제 중에 55 세 이전에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사람이 높은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을 경우 이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더 크다고 한다.

* 진단

혈액 검사로 혈중 콜레스테롤 치를 측정한다. 20 대에 콜레스테롤 치를 검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 이후 5 년마다 재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혈중 콜레스테롤치가 비정상일 경우에는 더 자주 검사를 해야 한다.

1.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건강인은 200 미만이어야 한다. 200 이상일 경우, 의사는 HDL, LDL, 트라이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s)를 검사하게 된다.

- 1) HDL(좋은 콜레스테롤) : 건강한 수준은 60 이상이다. 이 수치가 40 미만이면 의사와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 2) LDL(나쁜 콜레스테롤) :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건강한 수준은 160 미만이다. 그러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7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Triglycerides :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 수치가 올라가는데 건강한 수준은 150 미만이다. 200 이상이면 의사와 치료 방법을 상의해야 한다.

* 치료

우선적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몸에 좋은 건강식을 섭취하고 주기적인 육체적 운동을 해야 하며 금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다 한 후에도 혈중 콜레스테롤치가 정상인 아닌 경우, 특히 LDL(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는 경우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하게 된다.

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 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약의 선택은 각 환자의 위험 요소(Risk factors), 나이, 현재의 건강 상태, 약물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변비,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간에 미치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자기 요법(Self-control)

치료의 서두에 명시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의사의 약물 투여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약물 투여를 안하고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생활습관의 변화는 콜레스테롤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책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 식품을 골라 섭취하며 육체의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당장 끊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만증은 콜레스테롤치를 올리는데, 5-10 파운드의 체중만 감량하여도 총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에 이로운 식품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는 콜레스테롤치를 올리고 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들은 콜레스테롤치를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고 산다.

1. 통곡류(Whole grains) :콩,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한다. 또한 통곡류 안의 영양분은 심장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통곡류로 만든 빵(Whole grain bread), 통곡류 파스타 등을 선택하며, 현미(Brown rice)를 많이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일반 우유(Whole milk), 라드와 같이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 그리고 이중 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한다.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300 mg 을 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심장병이 있는 분은 200 mg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껍질을 벗긴 닭고기 가슴살, 지방을 제거한 우유(skim milk)와 같은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3.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canola oil)과 같은 단순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한다.
4. 심장에 좋은 생선: 참치, 헬리벳(Halibut), 대구(cud)와 같은 생선은 콜레스테롤이 적게 함유된 생선이며, 연어, 고등어, 청어와 같은 생선은 오메가-3-지방산(omega-3-fatty acid)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장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5.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음식, 브로일, 그릴 또는 로스트한 음식을 섭취한다.

성경에도 음식물 섭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곳이 있다. 레기위 11 장에 보면 1 절과 2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시기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로 시작하여 47 절 말씀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로 말씀을 마치시고 있다.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닛 생물들 중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신 지침이라 본다. 현대 과학자들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겨우 알아낸 진리들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에 벌써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다.

과학과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부작용 내지 부산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많이 발생시켰다고 본다. 발달된 교통 수단으로 육체적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비만 등의 문제들이 생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음식물 보다는 우리 입에 쉽게 맞는 가공식 등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 우리 몸에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소위 말하는 문화/현대 병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의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건강하고 기쁨 가득 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 및 기초가 된다고 본다.

<독자투고> 선악과와 에배/진석원 교우

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는 그 열매를 인간에게 금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가운데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 선악을알게 하는 나무를 포함하여 -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좋은 것이고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창조의 완벽성은 하나님께서 여섯 째 날까지 창조를 하신 후 일곱째 날 부터 쉬셨다는 것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이는 창조의 결과가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는 오직 영원한 안식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1.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2.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 창세기 2 장 (이하 동) -

그런데, 이러한 안식 가운데 갑자기 하나의 긴장이 조성됩니다.

16.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한 긴장은 먼저 하나님 쪽에서 제기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긍정의 흐름 속에 부정적인 어떤 것이 등장 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한가운데 돌을 하나 던진 샘이죠. 이러한 경고를 받은 인간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반대로, 이러한 통지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죽음’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그 당시 인간은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 이 ‘죽음’이란 말은 인간이 배운 최초의 부정적 지식일 것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인간에게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죽음을 이야기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고 문제 없는 완벽한 세상 속에서 왜 곱이 사서(?) 문제를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쓸데 없는 것을 창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면 분명 필요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인간의 식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창조물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 되어짐’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구분되어 짐’을 이야기하면 제사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분하여 드렸던 것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상징으로 일부를 떼어 구분한 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모든 창조가운데 하나님께 드러지는 최초의 예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6 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짓는 것을 모세에게 명하신 후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 자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막에 쓰일 재료들, 즉 온갖 보석과 재물들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들이 성막에 사용할 그러한 보물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들은 바로 출애굽 할 당시, 애굽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기를 재촉하며 손에 쥐어 주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대재앙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로 작용하였고 애굽 사람으로 부터 받은 이러한 세속적 재물들이 이제 잠시 후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신령한 하나님의 성막 재료들로 사용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 자원하는 심령들만이 그 재물들을 내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로 받은 것들이 자원하는 심령의 드림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임재인 축복의 성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환원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분하신 것과 그 의미에서 맞닿아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하며 주셨고 단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하나만은 자신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과 감사라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예배를 욕심이 나온 불순종을 통해 파괴해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구분된 단 하나 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빠진 것이지요.

4.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는 오며 가며 쉽게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의 중앙이 언덕과 같은 동산처럼 조성 되어 졌었다면 멀리서도 잘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시로 그 나무 밑을 지나다니며 비록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일 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오직 이것 하나만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심에 대해 오늘날 우리처럼 궁금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금하셨을까?’

하나님께서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그러하셨던 것 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추측하건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쪼개서 만든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 것이고 세로축은 생명나무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그룹들을 통하여 지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인 선악과에 대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손 뻗힘에 대하여 예수님의 손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로 인한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창세로 부터 간직하여 놓으셨던 생명나무를 쪼개어 땅에 꽃으셨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완성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제사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교만한 인간에 대한 형벌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일깨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지냈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 부터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낱

흙이라는 것, 그래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타임아웃(Time-out)을 연상케 합니다. 즉 생각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겠지요.

16.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17.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젠 매일 땅을 보며 땀을 흘리고 자신의 본질이, 자신에게 대하여 저항하는 땅의 본질적, 물질적 고통을 느끼며 허리를 숙여 땅을 갈면서 내가 바로 이 흙에서 나온 존재였음을 그리고 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날마다 느꼈겠지요. 그러면서 아담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나의 본질인 땅으로 부터 수고하며 생산해낸 소산이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이며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야지.' 따라서 예배란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현재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구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동산 한가운데 똑 같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독자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차애선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안에서 산다는것은 내 머리만 아니면 내 생각만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그리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실하다

내가 사는 시간이나 공간, 세계, 내가 듣는 음악이나 보는 영화나 나와 관계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이나,, 내가 잘못하는혹은 잘하는 모든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그렇다.

맑은날 아침에 뒷 마당에 나가 올해 좀 신경써서 키운 진분홍 겹장미의 꽃잎에 코를 대고 복숭아 냄새나는 향기를 가슴속 깊이 들여 마시며 취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향기로우심을 알게되어서 그렇고

새끼 손톱 반 만큼 작은 들꽃 안에 토끼 귀 같은 긴 꽃잎 2 개, 작은 꽃잎 3 개, 꽃술 그안에 반짝이는 금빛가루를 입혀놓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장난스러우심에 웃음이 터져 나와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마구 웃는 것을 보니 그렇다.

큰 딸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네 딸이니까 내가 안다” 하는 음성을 듣고 보니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도 모두 알고계신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을 잃고 낙심될때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때 나의 죄까지도 거룩하신 예수님이 품어주신것을 깨닫게 될 때 그렇다.

나 에게 상처를 주는사람으로 인해 슬플때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해라 하는 하나님의 권고를 들어서 마음을 바꿀수 있을 때 그렇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주는 일로 인해 위축이 되어 사람 만나는 일이 겁이날 때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의 모범이 있는곳이라 그 사람이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 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 시킬때 예수님의 피가 만드신 새 사람의 부드러운 마음들을 볼수 있을 때 그렇다.

완벽 하지는 않지만 이일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될 때, 내 안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수있게 되었구나 알게될때 등등 많이 있다.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가 좋은데, 집에서는 청소나 ,저녁반찬 연구로, 빨래감을 해치우는 일로 혼자 있을 수가 없지만 차를 타면 그 작은공간이 외부와 차단되며 아늑한 나만의 공간으로 되기 때문이다. 음악, 찬양 ,설교를 듣는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미네아폴리스 다운 타운에 눈발이 흩날리는 날 “사랑을 할꺼야, 너만을 위하여 “ 라는 한국 가요를 듣게 되면 괜히 행복해지고(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만드신 것이 참 좋아요 하고 하늘을 쳐다본다), 가을날 깊은 음색의 격정적인 첼로 음악이라도 들으면 그 남성적 매력에 매료되어 난데없이 “그래 세상에 남자는 꼭 있어야해 “ 라며 결론을 내린다(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을 동의해 드리는 순간이다).

남성성에 대하여 말 해보자면, 내가 열광하며 매력을 느끼는 것은 식스팩 복근이나 꽃미남의 외모가 아니고 이런것들 이다.

언젠가 CBS 의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4 명의 남자 의사, 판사 ,교수 , 정치인의 간증시간이 있었다. 각각 따로 녹화가 되었었는데 , 4 명이 한결 같이 입을 벌려 첫 마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며 마치 우리의 장래를 그들 어깨에 메고 가는것 같아서 감동했었다..

그 믿음직한 어깨나,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손이나, 불쌍한 사람을 품는 가슴이나, 불의를 저항하는 입술이나, 죄를 보고 흘리는 눈물이나, 책임을 지려는 행동이나, 최고봉을 정복하러 가는 다리나 이런것들에 마음이 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의도 하신 진정한 남성성을 나도 모르게 알아채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다.

단풍에 물들은 나무 사이를 지나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찬양을 들으면 아버지 하는 외마디 외침이 나오며 눈물이 핑돌기도 한다(그래 믿음으로 살자 하며 어금니를 짹 무는 순간이다).

하루는 ARC 집회장소로 혼자서 운전을 하고 가는 나른한 오후였다. 클래식 스테이션에서는 기라성 같은 유럽 작곡가들의 음악후에 20 세기 초반의 미국 작곡가의 음악을 자랑하며 소개 하고 있었다. Samuel Barber 의 Night Flight 라는 음악이었다.

2 차대전때 전투기 조종사가 밤에 비행하면서 길을 잃어 폭풍우속에 헤메이는 상황이 배경이 되는 음악인데 정말 캄캄했고, 불안하고 무섭고 죽음을 향한 비행이 느껴지는데 후반에 가면 피아노 단음으로 모르스 신호를 연주한다. 그 순간에 , 그 비행기 조종사가 느꼈을 엄청난 희망과 안심이 느껴지면서 그 생명을 구조하는 모르스 신호음을 움켜쥐고 눈물을 쏟으며 운전하고 있는 날 보았다.

삶이 라는 것이 마치 허리에 끈을 묶고 피라미드에 들어갔다가 끈이 끊어져 미로속에서 길을 잃은 개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손을 잡으신 것이 온 몸으로 생각이 났다. 그 막막함 두려움 고통 허무와, 안심 감사 든든함과, 있는 힘을 다해 그 손을 잡는 내 마음이 그 모르스 신호음에 쏟아 진것이다.

그 비행기 조종사가 들은 구조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때를 생각나게 해주었고 죽음을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은 감격은 미로속에 헤메이던 개미가 기적적으로 끊어진 끈을 다시 발견한 것과 같았다. 개미였던 나는 그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되었다. 집회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난 그 음악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 튼튼히 다지고 있었다.

Jody Foster 주연의 contact 이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미지의 세계와 접촉하려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 타고 그 여자가 시간 내지는 공간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었는데, 혼자서 모르는 곳을 가는 공포를 연기하고 있었다.

뒤에 나오는 장면이나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나는 크나큰 안심을 만끽하고 있었다. 내가 하는 시간이나 공간여행은, 즉 인생여행은 나 혼자 하는것이아니고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 예수님은 안가본곳이 없으시고 모르는 미래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한 내가 몰라서 무섭거나 당황하게 되는 미래나 장소가 없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생길을 예수님 손 붙잡고 안심하고 걸어가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것이다.

몇가지의 이야기 었지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할까 두려워 하지 말고 은혜를 감사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 다짐해 본다.

<독자투고> 초원에는 잡초가 없었다/박 미옥 사모

내 집이라고 가지고 살면서 꽃을 보는 기쁨도 있지만 잡초와의 전쟁도 해야 한다. 이사 오던 첫 해 지인들이 와서 꽃밭을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에도 남편이 덧붙여 뒗 들의 경계선을 따라 긴 밭이 생겼다. 그리고 야채 밭도 생겼다.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도심 속에서 그것도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나로서는 여간 가슴이 부푸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주는 물을 먹고도 깻잎이 자라고 호박이 자란다는 사실. 특별히 토마토 향기를 맡을 때의 감격은 신비롭기 까지 하며 첫 해를 지났다. 하지만 이듬해 여름방학이 되어야 집에 올 수 있는 남편 보다 훨씬 먼저 잡초가 찾아왔다. 잔디밭 이곳 저곳에서 노란 민들레가 피기 시작했다. 색깔도 모양도 예쁘기만 한 이 민들레를 누가 잡초라 이름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잔디가 노랗게 물들어 갔다. 이웃집 보기도 민망하여 주말 하루 온종일 민들레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한 술 더 떠서 이름 모르는 가시나무 풀이 여기 저기서 번져가고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잔디 사촌쯤 되어 보이는 잎이 더 두껍고 뽕처럼 피는 크랩잔디가 자라나는 것이었다 이른바 잡초와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힘에 부쳐 쉬는 동안 성경말씀이 생각난다. ‘성경에서는 가라지도 그냥 나두라고 하시지 않았나? 나는 그러면 안될까? 핑계만 있으면 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

지난 여름 아이들을 캠프에 데려다 주러 갔었다. 동네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시간 호수 북쪽의 한적한 곳이었다. 아름다웠다. 유니폼을 입은 양 줄지어 서있던 침엽수들도 자세히 보니 하나 하나 모습이 다르고 색깔이 달랐다. 호수를 끼고 도는 아름다운 초원들 거기에 들꽃들이 액센트를 더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잡초가 없었다. 모든 것이 자기 몫의 영토를 가지고 뽐히는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다. 공존의 조화가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고 있었다. 이런 인위성이 없는 자연으로 들어오면 정신이 맑아진다.

그러면서 두고 온 우리 집 잔디가 생각났다. 수많은 규율 속에서 잔디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며 산다. 너무 길어도 안되고 다른 것과 섞여도 안되고, 잔디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 깎이고 뽑히며 한 해를 보낸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도 매 한가지.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규율로 서로가 서로를 구속한다. 사람이 그러면 안되고 이러면 안되고.. 그런데 그 많은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보다는 내 기준일 때가 적지 않다. 복음서에도 보면 수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잡초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수님 앞으로 간음한 여인도 데리고 오고 세리도 데리고 온다. 이를 향해 예수님은 사회의 잡초로 자라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해 보여 주신다. 용납과 사랑!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어울리면서 살면 아름다울 텐데, 미시간의 초원 처럼 말이다. 아니 다 용납할 적극성과 아량이 부족하더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기억하며 소극적 인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그 긴 여름날도 어둑 어둑 해 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 잔디는 가라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 깎고 뽑아야지 어떡하겠는가? 싫으면 미시간 초원에 가서 초막 짓고 살던지...

<독자투고> 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위한 잔치/전성균 장로

그 날 우리는 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기립 박수를 받는 감격과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였다. 이 고장에서 오랜 세월 정성으로 회사를 경영해 온 신앙의 동지 김박사가 올해의 경영 지도자 상을 받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다. 사회 하는 자의 미네소타 기업인 연합회에 관한 역사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금년에 시상을 받는 여러

사람의 업적 소개와 상장 수여가 있는 뒤 마지막으로 김 박사에 대한 시상이 시작되었다.

그와 오랫동안 친교를 맺어온 친구 Gary 씨가 나와서 김 박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였다. 그는 자기의 친구가 얼마나 박식하고 다방면에 관심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동안 여러 모로 배운 것이 너무도 많다고 칭찬했다. 그의 사업의 성공은 그의 박식함과 함께 직원을 포함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 알뜰한 내조를 한 부인과 가족 그리고 주위의 많은 친구들의 도움에 힘 입는바가 크다고 했다. 그의 진실하고도 자연스러운 그리고 유머가 넘치는 멋진 소개를 듣고 장내에 모인 300 여명의 하객들은 서서히 일어서서 모두가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수를 받으며 나와서 단 위에 선 김 박사는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자기가 걸어온 기업인으로서의 삶을 차분히 털어 놓았다. 그는 오래 전에 기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뛰어서 회사가 순조로이 경영되어 왔는데 2005-6년에는 갑자기 경영난이 닥쳐와서 위기에 처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 때에 그는 자기의 집을 잡히고 은퇴 자금까지 전용하면서 까지 그 위기를 탈출 하려고 애 썼고 회사 여러 직원들이 감봉을 자원하면서 까지 회사를 지켜 주었고 모든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여 순조로이 해결되어 지금은 잘 경영하고 있다고 술회해서 잔잔한 감동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스쳐갔다.

이어서 자기의 기업에 관한 철학을 쉬운 말로 소개 하겠다고 해서 듣는 이들의 귀를 기울이게 했다. 그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서 부인과 자주 즐기는데 달리는 기쁨과 함께 체력 단련에도 좋으니 여러 분들에게도 권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전거 운동의 문제점은 항상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달릴 수 있는 것 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사업 경영에 필요한 조건을 말 하면서 세 바퀴가 달린 자전거는 넘어 지지 않는다고 하며 그 첫 바퀴는 좋은 가족과 고용인 들이고 둘째는 좋은 고객이고 새째는 오늘의 모임을 주최한 모임같이 소수 민족의 사업이 잘 되도록 협조 해주는 단체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는 바퀴 하나를 더 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은 Community (지역 공동체) 라고 했다. 즉 지역 사회의 도움이 사업 성장의 비결이고 회사가 성공하면 고용 창출이 많아지니 지역 사회에 크게 공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며 그 점을 강조 하였다. 이 말을 끝내고는 들고 나온 메모지를 한 참 드려다 보더니 자기가 쓴 것인데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이제 인사 말씀을 끝 내라는 신호 같다고 해서 모두가 한 바탕 크게 웃었다.

원만한 인품으로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역경을 이기고 회사 경영을 순조로이 이어온 김 박사의 담담하고도 솔직한 사업 철학은 여러 사람의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

하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상장을 받을 때 또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른 수상자와는 달리 가족들을 단위로 불러 모아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기에 좋았고 사진을 찍기 전에 함께 자리를 하신 이 목사님 내외분은 준비하신 꽃 다발을 김 박사의 가슴에 안기고 축하의 뜻을 표 하셨다.

순박하고도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으로 다 방면의 지식과 교양을 쌓고 교우의 폭을 넓히고 직원과 이웃에게 알뜰한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고 살아온 김 박사는 그의 노력에 합당한 푸짐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질 만능과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때로는 삭막하기도 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말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달래며 사는 우리에게 이 시상식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그 시원한 물로 목을 추기며 새 힘을 얻는 것과 같은 신선한 기쁨을 맛보게 한 귀한 자리였다.

만장에 모인 하객이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기립 박수를 보내는 자리에서 그들과 어울려 힘있게 손뼉을 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 앞길을 훌륭하게 개척한 한 한국인을 눈 앞에서 보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 짐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과 돌 보심이 그와 그의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늘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 나왔다.

<추모> 이윤호 장로님 영결 예배 조사/전성균 장로

오늘 영결 예배를 드리게 된 고 이윤호 장로님께서서는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이 고장의 선구자 이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Longfellow 는 인생의 찬미라는 시에서 “위대한 사람의 삶은 시간의 모래 사장 위에 크다란 발자국을 남기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송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라고 읊었습니다. 이 고장에서 그 큰 발자국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이 십니다.

오래 전 이 사람과 가족이 유럽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곳 대학에 자리를 얻어 대서양을 건너 이 고장에 와서 이삿짐을 풀었을 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 주신분이 바로 이 장로님 내외분 이셨습니다.

주말이 되면 객지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을 댁에 불러 모으시고 따끈한 한식을 푸짐하게 대접하시며 객고와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삶의 원동력을 공급하실 때 우리 가족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불러 주신 것 지금도 기억에 생생 합니다.

아마도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장로님 내외분의 대접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숭고한 섬김의 삶을 본 받으려고 그 반열에 끼이려고 해 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되고 두 분은 참으로 장하신 분들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부드러우셨고 순박하셨고 진실이 가득 찬 아름다운 성품으로 곧은 신앙의 생활을 꾸준히 평생 이어 가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언제나 반가운 미소를 지어 시며 겸손히 손을 잡아 주셨고 소신을 굽히지 않으시고 평생 한 길을 걸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조용히 보여 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 셧습니다. 이 고장의 교회와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 하셨고 물심 양면으로 최선의 도움을 주신 것, 오랫동안 여러 번 한인 회장으로 큰 수고를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이 고장의 한인 사회는 이 장로님 덕분에 그 맑은 전통을 이어 올 수가 있었다고 확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장로님 이제 저 광명한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우리가 후일 그 곳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장로님처럼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성을 다 해서 살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찬 그 곳에서 부디 편히 쉬시옵소서.

이 권사님과 유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2009년 10월 31일>.

<추모> 이윤호 장로님 영결 예배 조사/김태환 집사

이윤호 장로님은 이곳 미네소타에 자리잡은 최초의 한인 이민자 그룹으로서, 초기 이민자들이 겪어야 할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장벽을 뚫을 끈 노력과 성실한 대인관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하시며, 저희 후배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선구자이며 개척자이십니다.

60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Jamestown College 와 미네소타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시고, 후에 에이프런 제조사업을 통해 사업가로 크게 성공도 하셨습니다.

Jamestown College 에서 공부하실 때에는 이 장로님의 기숙사 방은 밤에도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 방으로 학교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탁월한 암산과 주판

기술로써 그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계산기와 의 계산시험에서 이긴 후에는 North Dakota 에서 경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윤호 장로님을 선배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모시고 살며 저는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장로님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이윤호 장로님은 남과의 경쟁에서 절대로 지기 싫어하는 완벽주의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이가 훨씬 젊은 우리들과의 골프대결은 언제나 불꽃이 튀기는 흥미진진한 시합이 되곤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챔피언 급의 정구선수이셨습니다. 이순자 권사님께 정구 레슨을 주신 것이 인연이 되어 후에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연전에 이윤호배 쟁탈 한인테니스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본인이 기증하신 우승컵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 이 대회에 선수로 참가해서 분투하시는 승부근성도 가지신 이 장로님이셨습니다. 한번은 저희 아들 Richard 와 대전을 하게 되었는데,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Richard 를 격파하시는 이 장로님께 우리 부부가 약간 섭섭하게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에 대한 열정이 이 장로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열정 뒤에는 이 장로님의 넓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윤호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교인 Jamestown College 와 미네소타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재산을 희사해 주셨고, 오랫동안 Board of Regents 의 이사회원으로 봉사하기도 하시고, Jamestown College 의 Hall of Fame 의 명단에 오르는 영예를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미네소타 한인 커뮤니티에 이 장로님의 손길이 안 닿은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이 교회건물 구입, 두 장로교회의 합병, 한국학교, 한인봉사회, 한인이민사 편찬 등, 이 장로님의 도움 없이는 첫걸음도 땀 수 없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장로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선구자이시고 Godfather 이시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 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가시는 마지막 어려운 순간까지 지고지순한 부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여러 사람의 마음을 적셔주신 이순자 권사님, 그리고 유족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은 데서 우리나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 정진생 목사님의 부고를 듣고 /이병윤 교우

정진생 목사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리 훌쩍 떠나셨군요.

제게는 머리 숙여 전송해 드릴

틈도 아니 주시고요.

교회에서 만나면 제 손을 잡고

그냥 웃으시기만 하던 목사님

목사님의 그 자상하신 웃는 모습이

제겐 천 마디 설교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오래 전 이곳 한국학교를 위한 모금운동 때

먹물보다 짙은 마음을 담으셔서 정성으로 써서

출품해 주신 명품서에 사자성어!

“공연한 짓거리를 하였나 보다”고

수줍게 안쓰러워하시던 목사님!

그 네 글자는

목사님의 ‘그 우렁차신 축도’의 여운을 담고

저희 집 거실 벽에 큰 액자 되어

그때부터 숨 쉬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같던 정 목사님!

이젠 하나님 손 잡으시고

그 미소로 웃고 계시겠지요?

늦게나마 목사님 영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2010 년 봄, 이병윤 드림>